



2007년 타이어 안전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에서는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타이어의 관리 및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업계와 합동으로 타이어 안전사용 검사 및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금년에 실시한 총 10회의 안전검사사와 하반기에 실시된 타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2007년 타이어 안전검사

올해 실시된 타이어안전검사에서의 수검대수는 승용차 1,655대였으며, 이중 타이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은 10대중 1.6대 정도로 전년 안전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불량 유형별로는 「공기압부족」타이어의 사용차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100대중 8대 정도인 반면 「과마모」타이어 사용차량은 6대 정도로 감소하였다.

1 검사서비스 일자과 장소

| 차수 | 일자 | 장소 |
|-----|---------|--------------|
| 1 차 | 3월 23일 |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 |
| 2 차 | 4월 27일 |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
| 3 차 | 5월 25일 | 서울 노원자동차검사소 |
| 4 차 | 6월 22일 |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
| 5 차 | 7월 20일 |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
| 6 차 | 8월 24일 |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
| 7 차 | 10월 19일 |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 |
| 8 차 | 11월 16일 | 서울 노원자동차검사소 |

☞ 2월과 9월 실시된 타이어 검사는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위주의 행사로 동 타이어 검사 결과통계에서는 제외

2 검사결과 내용

(1) 타이어 정비불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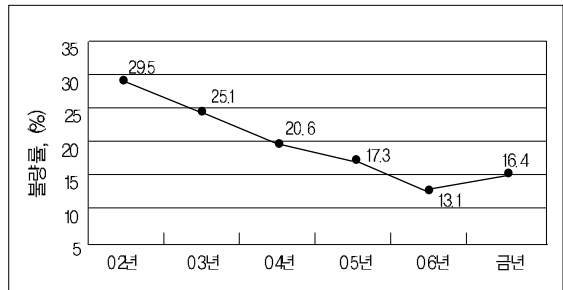
금년 타이어 안전검사의 정비불량률(총 불량대수 / 총 검사대수 × 100)은 승용차 1,655대중 272대의 타이어 관리가 불량하여 전년 검사 13.1% 대비 3.3%p 증가한 16.4%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불량률 증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자동차검사소에서의 검사 중 ‘노원검사소’에서의 높은 불량률에 기인한 것이다. 노원검사소에서의 높은 불량률은 특징적으로 수검차량 중 차량이 오래된 (10~15년) 차량이 많

있던 것으로 보아 차량 연식과 타이어 관리 상태 간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년 4회 실시된 고속도로휴게소에서의 정비불량률은 13.6%로서 전년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금년 검사장소별 정비불량률〉

| 검사장소 | 수검대수(불량대수) | 정비불량률(%) |
|-------------|------------|----------|
| 자동차검사소(4회) | 651(135) | 20.7 |
| - 노원검사소(2회) | 33(96) | 29.0 |
| 고속도로휴게소(4회) | 1,004(272) | 13.6 |
| 합 계 (8회) | 1,655(272) | 16.4 |

〈02년~금년간 정비불량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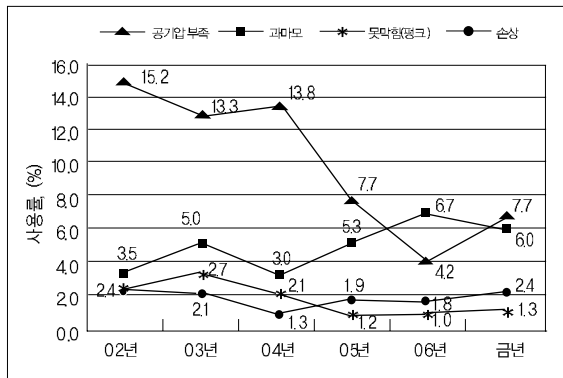


☞ 02~06년 : 전 검사 모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
07년 : 3, 5, 10, 11월은 자동차검사소, 4, 6~8월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

(2) 정비불량타이어 유형별 사용율

02년부터의 연간기준 정비불량타이어 유형별 사용율(각 불량유형별 대수 / 총 검사대수 × 100) 추이를 보면, 03년을 제외하고 06년까지 점차적인 감소를 보이던「공기압부족」타이어의 사용율이 금년 들어 증가(06년대비 3.5%p)로 전환된 반면, 04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과마모」는 올해 들어 감소(06년 대비 0.7%p)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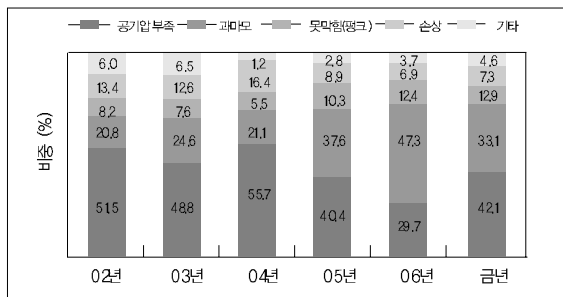
〈정비불량타이어 유형별 사용율 추이〉



(3)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금년검사에서의 타이어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각 불량유형별 건수 / 총 불량건수 × 100)은 정비불량 302건중「공기압부족」이 127건(42.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과마모」가 100건(33.1%), 그리고「못박힘(핑크)」과「손상」이 각각 39건(12.9%)과 22건(7.3%)으로 나타났다.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추이〉



02년~금년 간 정비불량 유형 중「공기압부족」과「과마모」가 70~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과마모」가 「공기압부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06년에 비해 올해는「공기압부족」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최근 5~6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정비불량률이 금년검사에서 노원검사소에서 높은 불량률로 인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검사만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비불량 유형별로는 과마모 타이어 사용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압 부족타이어의 사용률이 다시 증가함으로써 타이어 공기압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협회는 교통사고 감소·예방과 운전자의 타이어 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고속도로 교통연대」·「자동차 안전한전 Clinic」 [07.6월], 「타이어 정비점검 강화방안」 행사 [07.6월])하였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타이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2007년 하반기 타이어 안전사용·관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실시개요

■ 일시 및 장소

- 1차 : 07. 8. 24(금), 여주휴게소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 2차 : 07. 10. 19(금), 성산 자동차검사소 (서울 마포구)
- 3차 : 07. 11. 16(금), 노원 자동차검사소 (서울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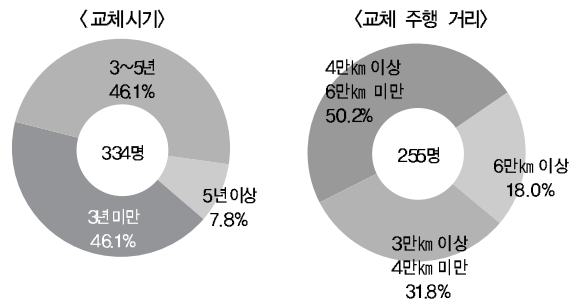
■ 응답자

- 응답자 수 : 승용차 운전자 총 343명 (1차 108명, 2차 128명, 3차 107명)
- 응답자별 승용차 유형 비중 : 일반승용 73.5%, 레저용 15.2%, 승합 9.9%, 짐 1.4%

* 06년 설문조사 응답자수 : 411명

2 설문조사 결과 내용

(1) 대부분의 운전자가 '5년 미만', '6만km 미만' 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



타이어교체시기는 응답자 334명중「3년 미만」의 기간에 교체하는 운전자가 154명(46.1%),「3년 이상 5년 미만」은 154명(46.1%),「5년 이상」이 26명(7.8%)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전자(06년 96.8%, 금번 92.2%)가 5년미만으로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타이어를 교체하기까지의 사용주행거리는 응답자 255명중 「3만km이상4만km미만」이 81명(31.8%),「4만km이상6만km미만」은 128명(50.2%),「6만km이상」은 46명(18.0%)으로, 06년 설문시와 같이 운전자의 약80% 정도(06년79.5%, 금번82.0%)가 6만km 이내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3이상의 운전자가 주행 중 타이어에 이상을 경험하였으며, 이상유형 중 펑크가 70% 정도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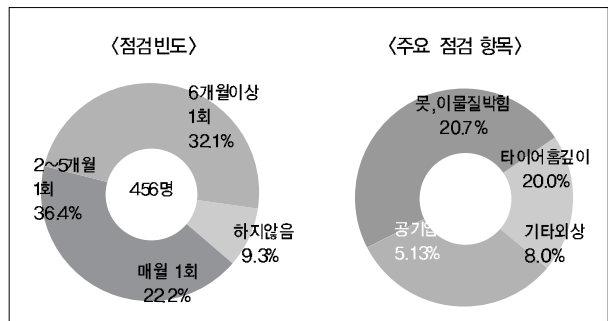
주행중 타이어에 이상 경험이 있었다는 운전자는 343명 응답자 중 116명(33.8%)이었는데, 06년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제유형중 「펑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파열」24.6%, 「접지면 고무분리」 4.9%, 「기타」3.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권장 타이어점검 빈도(월 1회)로 점검을 하는 운전자는 5명중 1명 정도였으며, 점검항목 중에서는 절반이상이 공기압 위주로 점검

타이어 점검빈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매월 1회」 점검이 76명(22.2%)에 그쳤고, 「2~5개월 1회」 125명(36.4%), 「6개월 이상 1회」110명(32.1%), 「하지않음」이32명(9.3%)으로 나타났다.

「매월 1회」점검을 한다는 운전자 비율은 06년 설문(23.8%) 대비 1.6%p 감소하였고, 「5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을 하는 운전자는 06년(58.1%) 대비 약간 감소(0.5%p)한 58.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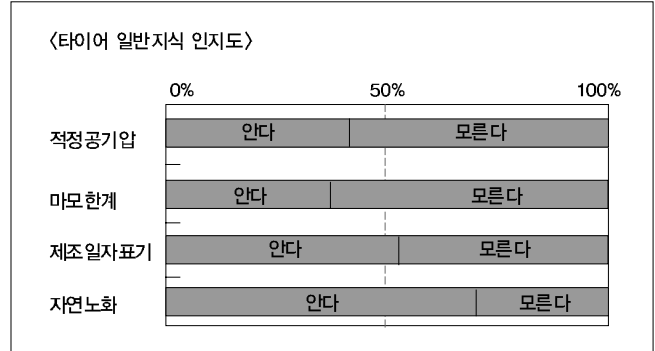
주요 점검 항목은「공기압」점검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어홈깊이」가 20.0%, 「못·이물질박힘」이 20.7%, 「기타 외상」8.0% 순으로 응답하여 절반 가량이 공기압을 위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타이어 안전관리의 핵심사항인 적정공기압과 마모한계를 모르는 운전자가 절반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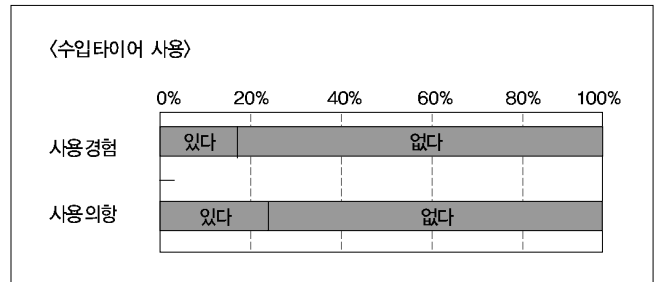
타이어 일반지식의 인지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타이어 적정공기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절반 미만인 144명(42.0%)으로 06년 설문 인지도 47.0% 대비 5.0%p 감소하였고,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홈깊이 1.6mm)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전년대비 1.3%p 상승한 143명(41.7%), 제조(생산)일자가 타이어 옆면에 표기된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90명(55.4%)으로 06년 54.0%대비 1.4%p 상승하였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이어가 자연노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260명 (75.8%)으로 06년 65.0% 대비 10.8%p 상승하였다.



(5) 수입 타이어를 사용한 경험이나 의향이 있는 운전자는 5명에 1명 정도, 주된 사용이유는 품질

수입타이어의 사용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는 61명(17.8%)으로 06년 설문(23.6%)대비 5.8%p 감소하였고, 향후 수입타이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도 77명 (22.4%)으로 06년 비율(28.5%)대비 6.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경험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타이어 선호 이유에 대해서는 06년과 마찬가지로 저소음, 내구성, 승차감 등 「품질(7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격(12.0%)」, 「기타(10.9%)」순이었다.

3 시사점

금년 하반기 설문조사에서는 06년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약 90%가 5년 이내, 또한 약 80% 정도가 6만km 이내 정도 주행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이어 교체 주기에 있어서는 양호하였다. 하지만 타이어 점검빈도는 6개월 이상 주기로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0명중 4명에 달했고, 적정공기압 및 마모한계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 정도에 그쳤으며, 더욱이 운전 중 타이어 이상경험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전체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협회가 권장하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 공기압점검 등 타이어 수시점검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